

25호 2019년 12월 15일

발행인:안창섭 / 편집인:김동석 / 편집:박시온 / 편집디자인:실크로드 인도네시아

Tel. : 021-3002-9090 E-mail : kogaindonesia1@gmail.com 광고문의 : 0858 9060 0962
Add: komp. Graha Cempaka Mas Blok A No. 11, Jl. Letjen Suprapto, Jakarta Pusat



중부자바주로 공장들이 이전...투자 확대의 기회

KOGA

한국 봉제산업을 선도하는
Vol. 25



서부 자바 주지사 “최저임금 상승으로 100개 이상 업체 태주 이전”



리드완 까밀(Ridwan Kamil) 서부 자바 주지사는 주에 거점을 두고 있던 기업 100개사 이상이 타주(他州)로 이전한 것을 인정했다. 지난달 29일자 현지 매체 펠 브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

으로 노동 집약형 산업의 기업들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 서부 자바주에서는 최근 주지사령 ‘2019년 제561/75호’에 근거한 지역최저임금(UMK□Upah Minimum Kota)을 발표했다.

리드완 주지사는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수가 많은 노동집약형 산업에 큰 부담을 주고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낸 다음, “최저임금은 향후에도 상승할 것 이므로 노동자의 요구를 충족하고 동시에 기업의 주 외 이전을 막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부 자바의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은 27개 시·군 모두 앞서 중앙 정부가 설정한 수준에 맞춘 8.51%였다.

지역 내 내년 최저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까라왕으로 월 459만 4,325루피아, 가장 낮은 곳은 반자르로 월 183만 1,885루피아다.

인니 중앙은행, 내년부터 외화 수출입액의 보고 의무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은 지난 4일 2020년 1월부터 미화 1만 달러 이상에 해당하는 비 천연 자원 거래에 대해 외화 결제 금액을 중앙은행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한다고 발표했다.

외화의 흐름을 세밀하게 관리하고 금융 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수출입 외화 결제에 관한 중앙은행령 ‘2019년 21/14호’를 11월 29일자로 시행했다. 2021년부터는 보고 의무를 계율리한 기업의 수입 절차를 일시 정지하는 등의 벌칙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수출된 외화는 현재 국내 외국환 은행을 통해 보고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지만, 내년



부터는 외환정보특별모니터링시스템(SiMoDIS)을 통해 중앙은행에 직접 보고할 필요가 있다.

광업 및 팜오일 등 천연 자원의 수출 사업에서 얻은 외화 수익도 2021년 1월부터 SiMoDIS를 통한 보고를 요구한다. 또한 1월에 공포된 시행령 ‘2019년 제1호’를 보완하는 형태로 국내 은행의 전용 계좌에 입금하도록 의무화 했다.

자카르타-찌깜 고가고속도로 개통... 만성 교통체증 완화

인도네시아 최장 고가고속도로 36.4km... 중간 출구없어 12월 15일부터 일반 차량 운행... 요금 확정될 때까지 한시적 무료



▲ 지난 12일 공식 개통된 자카르타~찌깜 고가고속도로. [인도네시아 대통령궁]

자카르타-찌깜고가고속도로(Jakarta-Cikampek II elevated toll)가 이달 12일 조코 위도도(조코위)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준공식을 열었다.

일반 운전자들에게는 이달 15일부터 새로 개통된 유로고가도로가 개방됐으며, 요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7월에 착공해 2년 반 만에 완공한 자카르타-찌깜고가도로는 교통량이 가장 많은 기존의 자카르타-찌깜고속도로 위,

‘찌꾸니르 인터체인지’부터 ‘까라왕 바랏’ 까지 (dari Simpang Susun Cikunir

hingga Karawang Barat) 연장 36.4km 고가도로로 건설됐다.

총 건설비 16조 2,300만 루피아(미화 11억 5천만 달러) 가 투입된 이 고가고속도로는

중간에 출입구가 없어 자카르타에서 서부자바와 중부자바, 동부자바, 발리 방면 등 장거리 자가용 소형차량만 운행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따라서, 트럭과 버스는 고가고속도로

에 진입할 수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긴 고가고속도로인 자카르타-찌깜고가고속도로의 최고 시속은 60km로 제한되며, 교통 법규 위반은 무인카메라로 단속한다. 고가고속도로 여려 곳에 교통경찰과 응급차량이 상시 대기하고 있다. 그동안 만성체증으로 시달려온 자카르타-찌깜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준공 소식을 듣고 일제히 환영했다. 서부자바주 반동 출신으로 자카르타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레스뚜 오까 유디피아(24) 씨는 자카르타포스트 와의 인터뷰에서 “주말이나 연휴 때 자카르타에서 반동까

지 가려면 5시간 정도 걸린다(평일에는 2시간 정도)”며, 시간이 많이 단축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나타냈다.

연휴 때면 극심한 교통체증을 빚는 자카르타-찌깜고속도로는 이번 연말연시에 교통체증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한편 국영 고속도로관리회사 자사마르가 관계자에 따르면, 오는 연말연시 귀성 차량이 12월 20일과 21일 및 12월 27일에 절정을 이루고, 귀경 차량은 내년 1월 1일과 2일 절정에 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말연시 귀성 차량 중 69% 가 자카르타-찌깜고속도로를 이용하고, 자고라위 고속도로와 머락 고속도로는 각각 15%와 9% 정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일리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새벽을 여는 기업!

F1 LOGIX
We are anywhere you are

www.f1-logix.com



F1 LOGIX

Wisma Korindo 9th FL,
Jl. MT. Haryono Kav. 62
Jakarta, 12780, Indonesia

Telp. : +62-21-797-6237
Fax : +62-21-797-6015
E-mail : kor@f1-logix.com



KTL, 인니 국가표준화기관 BSN과 기술협력 맞손

환경기술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술협력 체계 구축

국내 유일 공공 종합시험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원장 정동희)은 9일 인도네시아 국가 표준화기관인 비에스엔(BSN, 회장 밤방 프라스티야(Bambang Prasetya))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우리 기업의 신남방정책 핵심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 진출을 돋기 위해 환경기술 분야 시험성적서의 상호인정 기술 협력체계 구축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아세안(동남아시아국연합·ASEAN) 개도국 중 베트남에 이어 두 번째로 교역량이 많은 핵심 국가로, 우리 기업이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다. 최근 한-인니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CEPA) 타결 등



▲ 업무협약식 현장. 왼쪽 4번째 KTL 정동희 원장, 5번째 BSN 밤방 프라스티야(Bambang Prasetya) 회장(KTL 제공)

신남방정책의 핵심국가인 인도네시아와의 경제협력 가속화가 기대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그동안 강제인증 기술규제 품목을 신설·확대함에 따라 수출확대를 모색하는 우리 기업의 사전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며, 국내 중소·벤처기업들은 수

출 시 기술규제 정보 부족, 복잡한 규제지침, 현지 시험방법 및 표준 부재 등으로 인증획득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KTL은 BSN 밤방 프라스티 회장의 한국 방문을 통해 이뤄진 이번 협약에서 그동안 아시아인증기관협의회(ANF), 한-아세안 FTA경제

협력사업 등 양기관의 다양한 기술교류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기업 지원을 위한 환경기술 등 신사업 분야의 전략적 기술제휴를 강화해야 한다는데 상호 공감했다.

아울러 △환경기술분야 시험·평가·교정·검사 결과 상호인정 공동연구 △환경측정기기, 폐기물 재활용기술, 온실가스 감축 및 검증 분야 표준, 적합성평가, 계량측정과 관련된 공동연구 △인도네시아 자원순환 분야 사업 발굴 등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앞으로 양 기관은 환경기술 분야 시험성적서 상호인정 기술협력체계 구축을 신속하게 추진하여 국내 기업의 해외인증 획득 및 시장진출

을 보다 원활하게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국내 우수재활용기술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해 (사)자원순환산업진흥협회에서 참석하여 BSN, KTL과 업무협력 의향서를 체결하고 인도네시아 자원순환 클러스터 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정동희 KTL 원장은 “KTL은 전세계 56개국 145개 시험인증기관과 맺은 업무협력을 토대로 무역기술장벽(TBT) 애로 해소 및 해외인증 획득 지원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수출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양 기관의 핵심역량을 접목하여 우리 기업들이 신남방국가 진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애로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KTL의 53년간 축적된 역량을 투입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일보]



한국 점유율 1위 !

한신 에어 콤프레셔

콤프레셔하면 한신입니다!



한신 신제품 출시

1. AT 시리즈:
기존 인버터보다 **4%** 더 에너지절약 가능한 모델
2. GRH5G 시리즈:
냉각 성능 10% UP!!
오일 함유량 10% DOWN!
3. HBH 시리즈: 5~20마력 소형 오일프리

대표 / 유성열 : 0812 8037 0303 담당 / 한상윤 과장 : 0822 9999 1447
TANGERANG Ruko Tatakan Puri Block C1 No.25 Jl. Curug Raya Pos Bitung
Tangerang 15810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담당 / 정연오 이사 : 0815 1938 0006
JEPARA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Email : hanshin2009@hotmail.com
Telp : 021 5949 4000 / 5949 4222 Fax : 021 5949 4666

제7회 한인청년회 옥타 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 제7회 한인청년회 옥타차세대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 행사 (재인니한인청년회 제공)

인도네시아 한인사회를 이끌어갈 차세대들이 모여 한 해를 되돌아보고 새해를 설계하는 재인니한인청년회 회장 정제의와 옥타자카르타 차세대 대표 신지훈이 주관하여 ‘제7회 2019년 골프대회 및 송년의 밤’이 지난 2019년 12월 7일 땅그랑 모던랜드 골프장에서 열렸다.

이번 인도네시아 최대 한인 청년모임인 재인니 한인청년회와 옥타 차세대위원회가 공동주최한 본 행사는 골프 대회에 140명 참석, 송년의 밤 만

찬에는 180여명이 참석하여 골프대회와 만찬을 통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2020년을 새롭게 맞이할 것을 다짐하는 뜻 깊은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는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김종민 총영사, 아세안 대표부 김창년 공사, 박재한 한인회장, 세계한인무역 협회 김우재 명예회장, 옥타자카르타 지회장 김종현회장, 신기엽 한인회고문, 이철훈 보고르 한인회장, 배응식 옥타자카르타 고문, 손한평 한인회 수석부회장, 전민식 인니장애인태권도협회장, 이강현 코친수석부회장, 이규백 봉재협회부회장, 차상현 아시아나항공 지사장 및 인도네시아 Pak Andhika 반쁜 부주지사와 1

명, Pak Fahmi 반쁜주 지방의회 부의장, Pak Bayu Japnas 회장 외 1명, Pak Pascall Modern Cikande 공단사장 및 Pak Teguh 버끼시 이민국장 외 3명 등등 많은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재인니한인청년회 정제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해 그 누구보다 열심히 활동하시고 각자 위치에서 최선을 다한 우리 젊은 청년들, 2019년 한해 고생하셨습니다. 많은 네트워크와 승승장구하여 2020년 더 발전하시길 기원드립니다.”고 말했다.

옥타 차세대위원회 신지훈 대표는 “인도네시아 지회의 회원들과의 단합과 연결 뿐만 아니라, 전세계 있는 차세대 OKTA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전세계로 나아가는 활동의 기회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능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은 금융감독청이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청은 사태 해결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술을 청취한 분과위원장은 “작년부터 지와스라야 사태가 (의회에서) 2~3번 거론됐는데, 대선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6분과위 의원들은 조만간 지와스라야의 상위기관인 국영기업부 장관과 금융감독청장을 출석시켜 사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임원 등 한국인 474명이 지와스라야 사태의 피해자이고, 눈물로 해결을 촉구했다는 기사는 꼼빠스, 드립닷컴, CNBC인도네시아 등 현지 주요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연합뉴스]

한국 여성, 인니 국회서 “살려달라” 눈물로 호소한 까닭은

지와스라야 지급불능 피해 증언...인니 의원들 “미안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났는데 한국으로 돌아가지도 못하고 하루하루가 지옥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 지와스라야 피해자 48명, 국회 출석해 피해 증언

60대 인도네시아 한국 교민 여성 A씨는 4일(현지시간) 현지 국회에 출석해 국영 보험사인 지와스라야 지급불능 사태 피해를 증언하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다.

이날 A씨를 포함해 지와스라야 사태 피해자 48명이 인도네시아 하원 6 분과위원회에 출석해 10여명의 의원을 상대로 1년 넘게 돈이 둑여 있는 피해 상황을 진술했다.

출석한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5명이고, 말레이시아인,

네덜란드인도 포함됐다. 대다수는 인도네시아인이다.

대표로 피해 상황을 진술한 8명 중 마지막으로 마이크를 잡은 A씨는 남편과 사별해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남편이 남긴 연금이 지와스라야에 둑여 있어 갈 수 없는 처지를 털어놨다.

A씨가 “제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며 감정에 북받쳐 눈물을 흘리자 다른 피해자들도 곳곳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지와스라야는 KEB하나은행 인니법인 등 7개 은행을 통해 연 6~9% 고이율의 저축성보험을 판매했지만, 유동성 위기로 작년 10월 6일부터 이자

는 물론 원금 지급 정지를 선언했다.

피해자 가운데 한국인은 474명, 피해 금액은 5천720억 루피아(484억원)에 이른다고 현지 매체들은 보도했다.

한국인 피해자 대다수는 “예금상품인 줄 알았다. 하나은행 직원이 폐일 염려가 없는 좋은 상품이라고 추천했다”고 주장하며 하나은행이 해당 상품 가입증권을 인수해 지와스라야 대신 돈을 먼저 내주길 원한다.

하나은행 인니법인 측은 일부 불완전판매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인도네시아 금융감독청(OJK)이 승인해주지 않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한국인 피해자로 참석한 이강현 인니 한인 상공회 의소 수석 부회장은 “지급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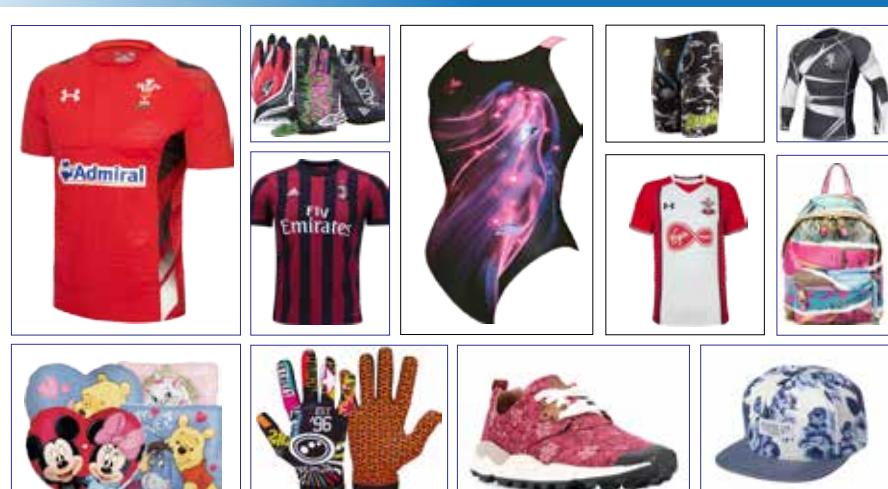
능 사태가 터지기 한 달 전까지 해당 상품을 판매한 것은 금융감독청이 감독을 잘못한 것”이라며 “금융감독청은 사태 해결도 가로막고 있다”고 성토했다.

진술을 청취한 분과위원장은 “작년부터 지와스라야 사태가 (의회에서) 2~3번 거론됐는데, 대선 등으로 정신이 없어서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6분과위 의원들은 조만간 지와스라야의 상위기관인 국영기업부 장관과 금융감독청장을 출석시켜 사태 해결방안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대기업 임원 등 한국인 474명이 지와스라야 사태의 피해자이고, 눈물로 해결을 촉구했다는 기사는 꼼빠스, 드립닷컴, CNBC인도네시아 등 현지 주요 매체에 일제히 보도됐다.

[연합뉴스]



PT. PARAN INTERNATIONAL
Garment and Digital Sublimation Printing

파란은 “디지털 승화전사 날염” 이란 신기술을 그 태동시부터, 폐사의 의류제작에 직접 적용하여, 대부분의 복종 및 원단특성에 알맞는 최적의 노하우를 축적하여 있습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방식의 프린팅 기술은 눈부시게 달라지는 트렌드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최신의 날염방식입니다.

환경친화적이면서
화려한 디자인과 선명한 색감표현이 가능하고
스포츠웨어, 아웃도어웨어, 피트니스웨어 등에 적합하며
의류에 높은 견뢰도를 보장하는

최고의 품질로써 고객의 요구사항을 모두 충족시키는 혁신적 기술입니다.

디지털 승화전사 적용 가능품목

실내수영복, 비치웨어, 피트니스웨어, 레저복, 자전거복, 장갑, 유니폼, 팀복, 쿠션, 모자, 가방, 운동화 등

Kawasan Industri Jatake Jl. Industri Raya III Blok AC/80, Kel. Bunder Kec. Cikupa Kab. Tangerang Banten – Indonesia 15710

Telp : (021) 590 5021 Fax : (021) 590 5023

Email : ys.paran@gmail.com paran.kwon@gmail.com

website : www.paranint.com

박용상 : 0815 1902 4176



조코위 대통령 아들, ‘아버지 정치 텃밭’ 서 시장 도전



▲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4월 사우디아라비아 방문 시 두 아들을 데리고 갔다. 동그라미 속 인물이 기브란 2019.4.15 [사진: 조코위 인스타 캡처]

조코 위도도(이하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의 30대 아들이 아버지의 ‘정치 텃밭’에서 본격적으로 정치 행보를 시작한다.

싱가포르 일간 스트레이츠 타임스 등은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 기브란 라까부밍 라까(32)가 내년 중부자바주(州)의 수라까르타(일명 솔로)에서 시장 선거에 도전하기로 했다고 13일 보도했다.

기브란은 전날 지지자 수백 명 앞에서 솔로시는 도약해야 한다며 “이제는 변화 대신 약진과 스피드를 이야기 할 때”라고 포부를 밝혔다. 솔로시는 조코위 대통령의 고향이자 정치 텃밭이다.

가구업체를 운영하던 조코 위 대통령은 2005년 솔로 시장에 당선되면서 정계에 진출했다. 이후 2012년에 자카르타 주지사에 선출돼 중앙 정계에 발을 디뎠다.

그는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하는 10 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한 상태다.

기브란도 솔로에서 태어났으며 싱가포르와 호주 등에서 공부했다.

2010년 외식업체를 세우고

사업가로 일하던 그는 지난 7월 설문조사에서 차기 솔로 시장 선호도 상위권에 오르면서 정치권의 관심을 받았다.

이후 기브란은 지난 9월 조코위 대통령이 속한 투쟁민주당(PDI-P)에 정식 당원으로 등록하면서 정치인의 길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투쟁민주당은 조만간 현 솔로 부시장인 아치마드 뿐르노모와 기브란 중에서 최종 시장 후보를 선택할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일에는 조코위 대통령의 사위 보비 아피프 나수띠온이 북수마트라주 메단의 시장 후보로 등록했다.

현지에서는 이런 기브란과 보비의 움직임과 관련해 조코위 대통령 가족이 ‘정치 왕조’를 구축하려 한다는 곱지 않은 시선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조코위 대통령은 “경쟁에서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데 그 것은 국민에게 달린 문제일 뿐”이라며 그러한 의혹을 일축했다고 현지 안타라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도서출판/인쇄 광개토

그간 코파의 힘, 미디어 코리아, 건설신문 창조를 발행 해 왔고

기업 CI, 홍보용 카다록, 북 디자인과 많은 프로젝트를 수행 해 왔습니다.

이제 직접 인쇄공정을 수행 해 낼 수 있는 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추고

고객 여러분의 만족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늦깎이 출발이지만 항상 곁에서 함께 하길 바랍니다.

이런 제품들을 제작합니다

카다록 / 도서출판 / 브로슈어 /스티커 /라벨 / 카렌다 / 행تك / 기타

0858-9060-0962

khong3000@gmail.com



김재훈 대표



김재훈의 세무상식

RPMK APA

(이전가격 사전 합의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

지난 11월 8일 국세청에서 이전가격 사전합의(APA)에 대한 재무부장관령 수정안(RPMK)에 대한 공청회(Rapat Audiensi Publik)가 있었다. BEPS Action 14 발효로 기준 재무부장관령 7호 (PMK 7/2015)에 대한 개정이 불가피하여 공청회를 통하여 의견 수렴 후 수정을 통해 2020년도에 발효될 예정이다.

BEPS는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세원 임식과 소득이전이란 뜻인데, 경제 주체인 기업들이 글로벌화 하고 빠르게 변경되면서 재정 비되어 못한 각국의 조세체계와 조세조약의 사각지대를 경제 주체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소득을 이전하고(Profit Shifting) 절세에 노력함에 따라 과세당국의 세원기반이 감소되거나 소멸하는 것(Base Erosion)을 말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OECD는 2014년 9월 BEPS Action Plan 중 7개의 실행 계획을 발표 후 2015년 10월에 총 15개의 Action Plan으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되었고 G 20에 제출되어 승인되었다. 현재 OECD 회원국뿐만 아니라 비회원국도 광범위하게 참여하여 자국의 세법 개정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2019년 3월 기준 129개국인 BEPS Action Plan에 참여하고 있다.

현행 규정과 수정안의 차이점은

내년에 발효될 재무부장관령개정안은 이전가격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적극 활용하기를 기대해 본다.〈끝〉

PMK 07 / 2015	RPMK APA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절차 2단계로 복잡 - Timeline이 완료시까지로 불명확 - 관할세무서 관여하지 않음 - Roll Back 없음 - 적용기간 (UAPA 3년 / BAPA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 하나로 신청 원료 - Timeline 단계별 규정됨 - 관할세무서에서 시작됨 - Roll Back 규정을 둠 - 적용기간(모두 4년)

학력 및 경력

- 핀란드 Aalto University School of Business 경영학 석사(MBA)
 - Certificate Tax Consultant (Konsultan Pajak)
 - Brevet A&B, Konsultan Pajak Brevet C from Artha Bhakti)
 - 현, 인도네시아 Tax Lawyer (Kuasa Hukum Pengadilan Pajak)
 - 현, PT. BNG Consulting 및 PT. Kantor Jasa Akuntansi Indonesia 대표
 - 현, 중소기업진흥공단 인도네시아 세무 자문 위원
 - 현, 재인도네시아 한인 상공회의소 세무분과 사무차장 및 고충 상담 위원회 세무 자문
 - 현, 한인포스트, 월간건설신문(창조), 월간봉제신문(Koga) 세무칼럼 저서
 - 알기쉬운 인도네시아 세법 (2015, 2016, 2018 중소기업진흥공단)
 - 인도네시아진출 우리기업 투자환경 개선보고서 (공저, 2016, Kotra, Kocham)
- TEL : 021 522 2739
e-mail : kimjhoon@bngconsulting.co.kr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자카르타 제2 외부순환도로 일부 구간 완공 선언

인도네시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일 자카르타 제2 외부순환도로(JORR2) 중 꾼찌란-세르詈 구간(총연장 11.1km) 완공을 공식 선언했다. 지난 7일 오전 6시부터 통행되고 있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9일자 보도에 따르면 꾼찌란-세르詈 구간은 JORR2에서 계획된 6개 구간



(110km) 중 하나로 순환 도로의 서쪽에 위치한다. 이 구간의 운영회사인 도로 공단 자사 마르가(PT Jasa Marga)에 따

르면 당분간은 무료로 개방한다. 세르詈 고속도로에서 꾼찌란-세르詈 구간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다.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6일 행사에서 “이 구간이 완공됨에 따라 자카르타와 반쁜의 공업 지대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고 특히 메락 항구의 물류 흐름이 더 원활해질 것”이라고 강조 했다.

2020년 새해에도
변함없이
함께 하겠습니다!



도레이 첨단, 차세대 신소재로 ‘매출 10조 · 영업의 1조’ 달성

서울 마곡 R&D센터 준공식서 ‘2030 비전’ 선포



▲ 도레이첨단소재는 2일 마곡 R&D센터 준공식과 더불어 2030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도레이첨단소재(대표이사 사장 전해상)는 ‘매출 10조원, 영업이익 1조원’의 초일류 기업으로 성장하는 2030비전을 선포했다. 2일 서울 마곡의 한국도레이R&D센터에서 이희범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비롯 고객사와 도레이 닛카쿠 아키히로 사장, 도레이 첨단소재 이영관 회장 등 임직원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과 비전 선포식을 가졌다.

초연결사회 진입에 대응해 미래 성장산업의 부품소재 파트너로서 차세대 디스플레이와 뉴 모빌리티 시장을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도레이첨단의 2030 비전 핵심은 신소재와 친환경으로 요약된다. 신소재는 최근 스마트 기술 종아로 주목받는 스마트폰 최첨단 필름소재 및 자율주행용 소재 개발이 초점이 맞춰져 있다. 폴더블 재료와 OLED 소재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용 고부가 가치 중심의 필름소재를 개발하고 5G 고속 전송용 소재와 MLCC용 이형재료, 희로재 등 자율주

행시대에 대응하는 신소재 개발에 집중한다는 것이다. 친환경에서는 탄소섬유, PPS 수지, 섬유소재에서 환경적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국내 최대 탄소섬유 메이커로 탄소복합소재를 활용, 이산화탄소 배출 절감에 기여하고 다양한 용도 개발을 위해 전후방 기업들과 연계를 확대 ·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수소차의 핵심소재 공급을 확대하고 차량의 고성능화에 대응, 수소경제

시대의 도래를 준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퍼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인 PPS 수지사업 용도를 넓히고 전기차 경량화를 주도해 나갈 계획이다.

섬유부문의 경우 아시아 1위인 스펀본드 부직포와 원면, 원사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친환경 원료소재 활용과 리사이클 원료를 사용하는 친환경 생활소재 분야로 영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전해상 사장은 “미래비전 2030 선포를 계기로 지난 20년간 성장을 이어받아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이뤄 ‘소재산업의 글로벌 리더’ 초일류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준공식을 가진 한국도레이R&D센터는 신성장동력의 산실로 고객사와 공동연구, 오픈 이노베이션을 추진해 융복합 기술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중부자바주로 공장들이 이전... 투자 확대의 기회



인도네시아 중부자바주 원

소영세기업과의 제휴도 확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DPM · PTSP 애디 기관장은 이어 “군/시와 협력해 다른 주에서 이전해 온 기업을 파악하고 있는 중이다.

일단 올해 6개 회사가 이전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6개사는 대부분이 섬유 관련 업체로 서부자바주 보고르, 수까부미, 까라왕에서 이전했다.

DPM · PTSP에 따르면, 중부자바주의 1~9월 투자 실현액은 전년 동기 대비 13% 증가한 47조 2,400억 루피아였다.

또 투자자와 중부자바주 중

산업계, 제4차 산업혁명 고용 증가에 기여

인도네시아 산업계는 제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고용 창출 효과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자카르타에서 4~7일에 개최된 기계 박람회 ‘매뉴팩쳐링 인도네시아 2019’에서 국영 통신 텔레코뮤니카시 인도네시아(PT Telekomunikasi In-

donesia)의 IoT(사물 인터넷) 아궁 과장은 “디지털 기술은 생산성 향상과 리스크 완화, 생산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고 말하며 “단순 작업의 직종이 사라지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신생기업의 성장으로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확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가정보통신기술사업 협회(APTIKNAS) 자카르타

지부의 프랭키 부장은 “동남 아시아 지역의 공통 과제는 기술 혁신을 담당하기 위한 인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고 말하며 “또한 고용 상실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스킬업 교육 등 인재 육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컨설팅 기업 맥킨지&컴퍼니는 제조업의 자동화에 따라 2030년까지 제조업 관련



단순 노동자 2,3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예상했다. 한편, 자동화에 따른 2,700만 ~4,600만명의 일자리도 창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PT. KARY INDOMAS ELOK

인도네시아 모피산업의 선두주자 !

Kawasan Industri Mitrakarawang

Jl. Mitra Selatan II Kav. 89 Karawang, Jawa Barat 41361, Indonesia
Tel. (+62 267) 440681-5 Fax. (+62 267) 440686

Contact person

Mr. Baek.K.S E-Mail : dolphin0524@gmail.com
Mr. ADE NENDA HP : +62 857 183 95894
E-Mail: ade.nenda@yahoo.co.id

Polyester BOA

- SOL SDF FABRIC
- SOL MICRO FABRIC
- SOL BR PUB FABRIC
- SOL FDF FABRIC
- BK BOA FABRIC
- BOA PRINTING

Polyester EF & VEL BOA

Available in 2,5mm and various colors
Available in special finishing such as Astra, Mogul and Snail .

뿌뜨리 인도네시아 우승자, 2019 미스 유니버스 Top10 올라



인도네시아 최고 권위의 미인대회인 ‘뿌뜨리 인도네시아 2019’의 우승자가 국제 미인대회인 ‘2019 미스 유니버스’ Top10에 올라 화제다.

주인공은 뿌뜨리 인도네시아 2019 결선에서 우승한 프레데리까 알렉시스 쿨(Frederika Alexis Cull, 20). 프레데리까는 8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에서 개최된 제68회 미스 유니버스 대회에서 결선에 진출했다.

이번 대회에는 각국에서 90여 명의 대표가 참가했으며, Top10에는 인도네시아, 미국, 콜롬비아, 푸에르토리코, 남아프리카공화국, 페루, 프랑스, 아이슬란드, 태국, 멕시코가 이름을 올렸다.

뿌뜨리 인도네시아 재단은 공식 인스타그램 @officialputeriindonesia를 통해 “뿌뜨리 인도네시아 재단, 무스따끼 라뚜(PT Mustika Ratu)와 인도네시아의 모든 미인대회 애호가들은 @frederikacull 그녀의 노고와 업적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프레데리까의 결선 진출을 축하했다.

프레데리까는 자신의 미모를 지켜준 비밀을 ‘한국산 시트 마스크’라고 밝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날 미스 유니버스 영예의 1위는 미스 남아공 출신 흑인모델 조지비니 툰지(26)에게 돌아갔다. 흑인이 왕관을 차지한 것은 2011년 이후 8년 만이다. 2위와 3위는 각각 푸에르토리코와 멕시코 대표가 차지했다.

툰지는 수상 직후 “나는 나와 같은 피부색과 머리결, 생김새를 가진 여성들이 결코 아름답다고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 자랐다”면서 “오늘로 그러한 생각을 끝내야 할 때”라고 의미 있는 수상 소감을 전했다.

조기조 교수의 경제산책

Dark Web, Dark Fate

어둠(dark)은 암흑, 지하, 비밀, 죽음 등과 연상된다. 시리즈로 나온 영화 터미네이터에 다크 페이트(dark fate)란 부제가 붙었다. 주인공의 힘들고 어두운, 시련의 운명을 예감케 한다. 인터넷에서 만일을 위해 구비해 둔 지하 통로 같은 다크 웹(dark web)이 엉뚱하게 쓰이고 있어 논란이다. 다크 웹은 미국 해군연구소가 1990년대 중반에 개발한 TOR(The Onion Routing)라는 기술로 특정 브라우저로만 접속할 수 있는데, IP 주소 등을 추적하기 어렵기 때문에 다크한? 용도로 쓰이게 되었다. 말하자면 접속자들 간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의 유통이나 마약·무기 등의 밀매가 이뤄지는 등 범죄에 활용되는 것이다.

다크 웹과 딥 웹(deep web)이라는 용어가 섞여 사용되고 있지만 의미가 다르다. 딥 웹은 검색 엔진이 찾을 수 없는 모든 웹 페이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크 웹은 딥 웹의 일부로 포함된다. 사실 다크 웹이란 적절하지 않은 이름이기도 하다. TOR는 불법이 아니며, TOR를 이용하면 익명으로 의사소통하고, 출판하고,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표현의 자유를 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이를 막는 나라가 있다. 정상적인 인터넷(클리어 웹)을 검열하는 나라들이 그렇다. TOR를 사용하고 지지하는 것이 곧,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돋는 것이라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 면에서 보면 다크 웹은 밝은 면이 더 많은 것이다. TOR를 사용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많지만 이들이 클리어 웹을 사용해서도 범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TOR 자체가 다크 웹이라는 것은 지나치다는 주장이다. 맞는 말이다. 컴퓨터로 다크 웹에 접속하려면 <https://www.torproject.org>에서 브라우저를 내려 받아 설치하면 되지만 무료 영화 정도나 보고 말기를 당부한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자는

오보트(OrBot)나 오폭스(OrFox)를 이용하고 iOS 사용자는 어니언브라우저(OnionBrowser)를 찾아 쓰면 된다.

다크 웹에 대한 이용자가 늘면서 범죄도 늘어 검찰과 경찰은 철저히 단속을 할 것이라고 벼른다. 불법을 하는 다크 웹 운영자는 물론이고 이용자도 처벌 대상이라며 다크 웹에서 일어나는 아동·

청소년 음란물의 유통, 마약·총기 밀매, 청부 해킹, 개인정보 거래 등에 대해 많은 수사관을 투입해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수사는 쉽지 않지만 국제 공조를 해야 가능하다. 인터넷 자체가 월드 와이드 웹(WWW)이기 때문이다. 올 들어 다크 웹 이용자가 국내에서 두 배로 급증하였고 하루 평균 1만 3천명이나 이용한단다. 세계적으로는 하루 이용자가 300만 명이나 된다. 이들이 불법 거래에 사용하는 돈은 임호 화폐이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비트코인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다. 익명성 때문이다.

나는 다크 웹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고 사용하지 않으니 피해 볼 일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해다. 우리가 가입한 웹사이트가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개인의 신상정보가 들어 있다. 적어도 아이디와 패스워드, 이름과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이 있을 것이다. 인터넷뱅킹에 가입했다면 계좌번호도 당연히 중요한 개인 정보이다. 해커가 특정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한 이용자의 계정 아이디와 패스워드)을 알게 되면 이를 통해 더 많은 다른 회원의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 사람들이 많이 쓰는 아이디와 패스워드 수천만 개는 쉽게 찾을 수 있다. 이를 대입프로그램으로 돌려보는 일은 식은 죽 먹기이다. 이렇게 수집된 개인 정보는 다크 웹에서 공공연히 거래된다. 불법으로 수집되고 유통된 나의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광고메시지나 메일



조기조 박사

을 받아 보았을 것이다. 어느 날, 내가 피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고도의 기술을 가진 해커가 나를 표적으로 할 가치가 있다면 내 신상정보를 지키는 것은 CCTV에 찍히지 않고 돌아다니기보다 어려울 것이다.

스마트폰이 융합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기기와 기능을 흡수한다. 이미 녹음기와 카메라, 팩스와 내비는 물론이고 놀라운 의료기기가 되고 있다. 앞으로 추가될 기능은 무궁할 것이다. 스마트폰 없이는 살수 없게 되었고 터미네이터가 추적해 오는 다크 페이트의 대상이 될지도 모르겠다. 문제는 보안이다. 미세먼지나 미세 플라스틱처럼 또 새로운 이 위협을 어찌 할 건지? 다크 웹은 잘 쓰면 악이지만 아치하면 독이 되는 양날의 칼이다.

조기조(曹基祚 Kijo Cho)
경남대학교에서 30여 년간의 교수직을 마치고 명예교수로 있다.
Korean Times of Utah에서 오래도록 번역, 칼럼을 써 왔다.
최근에 ‘스마트폰 100배 활용하기’를 내었다.(공저)
현재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의 이사장으로 봉사하고 있다.
(비상근)
kjcho@uok.ac.kr
(82) 10-9080-2449

SunStar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대한민국 대표 재봉기, 자수기!

썬스타 인도네시아 직영법인

실속형 패턴출시

- 전회전 가마타입
- 가로300, 세로 200 사이즈 (mm)
- Max Speed 2,200rpm

- ▶ FAST, ACCURATE SERVICE UP
- ▶ 재봉기 / 자수기 부품
- ▶ 보드수리 완벽구비!!!!



신형패턴 SPS/R-3020H, 2010H

SunStar
SWF

Jl. Mahoni 1 Multiguna Niaga Lippo Cikarang No. 3, Sukaresmi
Cikarang Selatan Kab Bekasi – Jawa Barat, Indonesia
Telp. : +62 21 8990 4038 / 4037

인도네시아 총괄 강현욱 이사

재봉기 오경환 팀장 001-62-821-4303-8822
자수기 강현욱 이사 001-62-858-8896-7825

okh@sunstar.co.kr
kevinkang1103@gmail.com

2020년의 트렌드 컬러, 옥색?



지고 싶어하는 대중들의 욕구가 어우러지면서 그와 비슷한 컬러가 꾸준히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일례로 최근까지 각종 업계는 땅과 나무, 풀을 상징하는 얼씨(earthy)컬러가 유행



세계적인 글로벌 트렌드 조사기관 WGSN(Wirth Global Style Network)은 2020년을 이끌 트렌드 컬러로 ‘네오민트’를 꼽았다. 이들은 패션업계에 이미 민트 컬러색상의 바람이 불고 있기에 내년에는 의류뿐만 아니라 인테리어, 디자인 상품 전반에 민트의 활기찬 기운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보았다. 초록색 톤을 기반으로 한 색상의 유행은 자연친화적인 트렌드인 ‘그리너리’에서 비롯한 듯 싶다. 실제로 2017년 팬톤에서는 올해의 컬러로 ‘그리너리’를 선정하기도 했는데, 그 후 초록의 활기찬 기운과 자연에 가까워



했었다.

그렇다면 ‘민트’면 그냥 ‘민트’이지 어째서 ‘네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네오 민트’는 합성된 단어로 명사 ‘민트’에 ‘새롭다’는 의미를 지닌 영단어 ‘Neo’가 붙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처럼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움을 의미하는 ‘네오민트’는 앞으로의 유행을 선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을 특특히 하고 있다.

‘네오민트’는 앞으로의 유행을 선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을 특특히 하고 있다. 한편 WGSN은 네오민트 외에도 ‘프리스트 블루’, ‘가시스’, ‘칸로프’,



‘멜로우 엘로우’를 2020 트렌드 컬러로 선정하기도 했다. 다소 낯선 네이밍 탓에 ‘그게 무슨 색이야?’ 싶기도 하지만, 직접 확인해보면 어떤 색인지 쉬이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민트’면 그냥 ‘민트’이지 어째서 ‘네오’라는 이름이 붙었을까? 이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듯 ‘네오 민트’는 합성된 단어로 명사 ‘민트’에 ‘새롭다’는 의미를 지닌 영단어 ‘Neo’가 붙어 만들어진 이름이다. 이처럼 미래 지향적이고 새로움을 의미하는 ‘네오민트’는 앞으로의 유행을 선도할 것이라는 측면에서 이름값을 특특히 하고 있다. 한편 WGSN은 네오민트 외에도 ‘프리스트 블루’, ‘가시스’, ‘칸로프’, ‘멜로우 엘로우’를 2020 트렌드 컬러로 선정하기도 했다.



직접 확인해보면 어떤 색인지 쉬이 알 수 있다.

다소 낯선 네이밍 탓에 ‘그게 무슨 색이야?’ 싶기도 하지만, 그래서 트렌드는 신기한 사회적 현상임이 분명하다.



PT. BOSUNG INDONESIA

한인기업과 30년을 함께 해 왔습니다!

인도네시아 한인기업의
차세대 리딩기업으로
한인기업과 함께
성장 할 3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www.bosung.co.id



종이 골판지 생산 / 카톤박스 / 포장용 박스 / 종이 쇼핑백
CORRUGATED SHEET / CORRUGATED CARTON BOX SHOPPING BAG / INNER BOX

Jl. Raya Rajeg Desa Sindangsari Kec. Pasar Kemis Tangerang – Indonesia
E-Mail : shopping@bosung.co.id | sales@bosung.co.id Tel : (021) 5935 1001 (hunting)
Fax : (021) 5935-0022 (Shopping bag), (021) 5935 0066 (inner box), (021) 5935 0033 (carton box)



美 조사 기관 “인도네시아, 동남아 전자화폐 이용 견인할 것”



미국 글로벌 시장분석기관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는 최근 발표한 조사 보고서 ‘2019 동남아시아 전자화폐 시장 보고서’에서 인도네시

아가 동남아시아의 전자화폐 이용을 견인하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동남아시아 주요 5개국(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의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 건수는 지난해 전년 대비 31% 증가했다.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비은행계 전자화폐에 의한 거래 건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동남아 전자화폐 이용에 있어 견인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됐다.

인도네시아의 국내 전자화폐 계좌 수는 1억 6,720만 계좌에 달하며, 이 중 비은행계가 1억 770만 계좌였다.

지난해 거래 건수는 20억 건

이상에 이르러 동남아시아 전체 거래량의 약 20%를 차지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배차 앱 대기업 고젝과 싱가포르계 그랩이 전자화폐 분야에서도 세력을 늘리고 있어 국내뿐만 아니라 동남아 진출이 가속화되고 있다.

산업부, 5년 간 자바섬 외 지역에 산업단지 19개소 개발



인도네시아 산업부는 10일, 2020~2024년 중기개발계획(RPJMN)에 따라 자바 외 지역에 산업단지 19개소를 우선적으로 개발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농업, 석유·천연가스, 금속, 석탄, 하이테크 산업, 항공 우주 분야에 특화된 산업단지를 건설한다.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10일자 보도에 따르면 아구스 구미왕 산업장관은 “19곳은 북부 수마프라의 세이망케이, 꾸알라 딴중, 리아우제도주 빈딴섬의 갈랑 바땅, 남부 수마프라의 딴중에

남, 서부 깔리만딴의 끄따牢固树立, 동부자바주 마두라섬의 방깔란, 북부 말루꾸주 웨다베이, 중부 술라웨시의 빨루 등이다. 모두 개발 중이거나 계획 단계에 있다”라고 언급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가동 중인 공단은 103개이며 총 면적은 55,000헥타르이다. 지역별로 자바섬이 58개, 수마프라섬에 33개소, 깔리만딴섬이 8개소, 술라웨시섬에 4개소가 있다. 이 밖에 건설중인 산업 단지가 15개, 건설 예정의 공업단지가 10개소가 있다.

SK의 기술과 하나스타의 노하우로 완성된 클라우드 영상보안 시스템 - HS View

**HS View를 놓으세요
이제 마음 푹 놓으세요**

하나스타의 새로운 스타!
HS 뷰 출시!

Cloud CCTV
HS View

2019년 가입 고객사를 위한 하나스타의 스페셜한 혜택:
설치비 무료 + 월 사용료 최대 20% 할인 + 무료 테스트 3개월 제공

www.hanastar.net.id



HS View의 영상 데이터는 IDC(Internet Data Center)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인터넷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접속 가능합니다

HS View, 이런 사업장에 꿈합니다!

- 보세 구역내의 수출입 통제 관리가 엄격히 적용되어야 하는 곳
- 도난/사고 예방과 증빙을 위한 고품질 영상 데이터가 필요한 곳
-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마케팅이 필요한 곳
- 프랜차이즈, 콜센터 등의 다자점 사업장
- 합리적인 가격의 신규 설치나 추가 설치가 필요한 곳

HS View, 이것이 다릅니다!

일반 CCTV	VS	HS View
잦은 해킹으로 인한 영상노출 위험	보안/기술력	전문 방화벽이 작동하여 해킹의 위험에서 안전
본체 또는 녹화장비	영상저장	IDC 클라우드 서버
고가의 초기구축비용 유지보수 비용	비용	구축비용 없는 월 과금 방식

영업문의: 0811 9936 516 / 0811 805 606
기술지원: 021 4000 2436~9

CWI ERP

한국의 전문개발업체와 함께 개발한 SaaS 기반 ERP

세관 Inventory, 경영분석 지원까지 다양한 패키지



효율적 회계 관리

회계 자료를 손쉽게 관리할 수 있어 정확하고 효율적 회계 관리가 됩니다.



정확한 자재 관리

IT INVENTORY(보세 구역 전산 자재) 시스템
요구 사항을 부합하며 자재 관리가 편리해집니다.



복잡한 ERP, CWI ERP로 해결하세요!

- 까다로운 인도네시아 세관 승인 획득완료
- 중/소규모부터 메이저급 봉제회사까지 사용가능한 Customizing
- 프로모션 기간 무료사용, 분할납부 등 다양한 가격 옵션 제공

www.cyberworld.co.id

PC한대 구매가격으로 세관 IT Inventory 시스템 사용 가능
2019년 특별 프로모션

www.cyberworld.co.id
데모 사이트

직지 적소성
CWI ERP로 자료 관리를 하여 적시 적소에 필요한 자료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 분석
정확하고 세밀한 분석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경영 분석에 큰 도움을 줍니다.

견적 요청 / 데모 신청
sales@cyberworld.co.id

인도네시아 자바섬 횡단 프로젝트 최우수 공공외교로 선정

정부, 공공외교위 회의 열고 모범사례 공모결과 발표
인도네시아 자바섬을 버스로 횡단하며 문화행사 등을 진행한 '뜨고 낭 자와' [Teko(Teman Korea) Nang Jawa · 한국친구 자바에 오다!) 프로젝트가 올해 공공외교 최우수 사례로 선정됐

다.
정부는 13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 주재로 열린 공공외교위원회 3차 회의에서 올해 처음으로 중앙부처와 지자체, 재외공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공공외교 모범 사례 공모 결과'를 발표했다. 최우수 사례인 '뜨고 낭 자

와'는 주인도네시아대사관과 한국문화원, 관광공사,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으로 구성된 프로젝트팀이 지난 9월 5박 6일 동안 홍보 버스와 한식 푸드트럭을 앞세워 자바섬 자카르타~수라바야 1천km를 횡단하며 진행 했다.

유명 유튜버를 활용하는 적극적인 디지털 홍보를 전개해 대(對) 인도네시아 공공외교의 저변을 확대했다고 외교부는 평가 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7개 중앙부처와 17개 지자체의 시행계획을 종합한 '2020년도



▲ 뜨고 낭 자와 프로젝트에 투입된 홍보 버스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제공]

공공외교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PT. TOILON INSU PANEL
Jl. Raya PLP Curug – Tangerang
Telp. (021) 5579 7181 Fax. (021) 5576 9926
Mobile. 0811 843 211
Web. www.toilon-insupanel.com

쾌적한 근로환경은 친환경 단열이 우선!

토일론 단열 지붕의 장점

- 1. Anti Panas 단열효과
- 2. Anti Bising 훌륭효과
- 3. Anti Api 난연효과
- 4. Anti Air / Water Proof 방수효과
- 5. Anti Fungal, Kimia 항곰팡이, 항산성 및 알칼리
- 6. Simple and Quick Construction 빠르고 간편한 시공
- 7. Long Duration 오랜 수명

PROFILE

전제품 8mm Polyethylene Foam 열접착

1. 35mm Trimdek
2. 25mm Trimdek
3. 35mm Spandek
4. Boltless-Seaming Type 110mm (Roll on Site)
5. Boltless-Seaming Type 55mm
6. Genteng Metal (기와)

저희 회사 전 제품의 철판은 호주가 본사인 PT. NS BLUE SCOPE INDONESIA로부터 공급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제품은 8mm Polyethylene Foam을 열접착하고 있습니다. Aluminium Foil 부착제품도 생산합니다.

공사건설현장

Parkland Indonesia Posco Indonesia

제6회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 수상작 · 입선작을 상품화에 추천합니다

해당 분야의 전문 교수들로 구성된 한국패션서비스학회와 창간 38주년을 맞은 전통의 전문매체인 한국섬유신문의 신학협력에 큰 관심 부탁드립니다.

한국섬유신문이 전개하는 지상전은 섬유·패션·의류산업의 뛰어난 디자인 발굴·육성과 관련 업계에 신선한 디자인 연결을 통해 공동 협업 발전하는 원-원 전략입니다. 전공학생들에게는 용기와 도움을 주고 필요한 디자인을 공급받으시는 메이커에는 신선한 충격으로 매출 신장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지 지상전은 수상·입선작 100여점을 50회에 걸쳐 매호 2점씩 소개합니다.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전공학생들 작품을 널리 알리는 동시에 수요 메이커에는 다양한 작품 선별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의·상담 : 김선희 부장 02-326-3600

*코리아 텍스타일 디자인 어워드(Korea Textile Design Award) 출품작의 모든 디자인 저작권은 주최측(한국패션서비스학회·한국섬유신문)에 있습니다. 무단 도용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한국섬유신문



▲ 작품명 : Lotus flower and stripe 이인선 作



▲ 작품명 : Viola Violet 강민지 作



PT. PUTRA PILE INDAH

인조 모피
인도네시아 경력 30년
생산 판매 LUXE FUR

**MORE REAL
MORE SOFTNESS
MORE ECO FRIEND**



PT. PUTRA PILE INDAH

Bekasi Int'l Industrial Estate Block C5-1, Jl. Raya Cibarusah, Lemahbang-Bekasi Indonesia 17550.
Tel. : 62-21-8972255 Fax. : 62-21-8972371

e-mail : ptpi@cbn.net.id

Contact Person: Mr Seung Jo, Lee / Mr Sunardi (Mobile Phone: +62-812-128-8816/+62-813-1984-6595)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공연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주인도네시아 한국문화원(원장 천영평)은 국립민속국악원(원장 왕기석)을 초청하여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공연을 12월 14일(토) 오후 6시30분, 수라바야 찌뿌뜨라홀에서 개최한다.

본 공연은 한-아세안 관계 수립 30주년을 맞아 개최된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한국과 인도네시아 사이의 문화예술

을 통한 민간교류 확대 및 우호 증진을 위해 기획되었다. 이번 국립민속국악원의 ‘천년의 소리, 천년의 몸짓’ 공연은 국악의 품격과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한국 전통문화 우수성을 알릴 수 있는 대표적인 작품들로 구성되었으며, 출연진과 제작진을 포함해 총 20명이 참여하여 다채로운 공연을 선사할 예정이다.

본 공연은 사물놀이, 무용, 민요, 판소리 등 총 7개 무대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무대는 경기·충청, 호남, 영남의 풍물놀이 중 특색 있는 가락들을 발췌하여 재구성된 <삼도 풍물가락>으로 힘차게 문을 연다. 그리고, 여인의 희로애락(喜怒哀樂)을 담아 전통춤의 단아함과 아름다움을 표현한 <산조춤>과 슬프고 한스러운 느낌을 주는 <해금독주비(悲)>가 연주된다.

이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록된 한국 전통예술

판소리 중의 하나인 <농부가>와 <방아타령>을 기악연주와 함께 들려주는데, 인도네시아 민요 연주를 함께 기획하여 공연에 참석하는 인도네시아 국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예정이다.

끝으로, 나라의 태평성대와

풍년을 기원하는 <태평무>와 판소리 <심청가>, 그리고 사물놀이 <판굿>으로 막을 내린다.

수라바야에서 개최되는 이번 공연은 동부자바 한인회의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 및 한인동포들에게 큰 관심을 받고 있어 인도네시아 한류열풍의 확산과 대중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양국 간의 우호증진 및 다양한 문화예술 활

동의 성장에도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과 외교부가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공동 추진한 2019 국제콘텐츠 공모전 ‘톡톡 코리아’ 수상작 전시와 각종 한국문화를 소개하는 ‘찾아가는 문화원’ 부스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 제공할 예정이다.

월간 KOGA지 광고를 제안합니다.

월간 봉제신문 KOGA지는 봉제 관련업체의 영업과 마케팅에 필요한 광고를 받고 있습니다.

1. 개요

주요대상 : 봉제관련 기업 및 자재, 장비, 기타 관련업체
광고매체 : 봉제신문 KOGA지(월간)

특징

1) KOGA지는 봉제협회 전 회원사에 다이렉트 메일로 매월 발송되며 관련 기업 약 300여업체 대표님과 그 직원 모두에게 매체 도달률 100%, 가독률 100%의 전문 소식지입니다.
또한 인도네시아내 각 기관 및 많은 기업에 무료 배송하고 있습니다.
개별 SNS를 통한 전달로 인도네시아는 물론 한국, 베트남 등 약 10여개국 5,000여명의 독자에게 전달됩니다.

2)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홍보 할 수 있으므로 설득력이 높습니다.

3) 설득력이 높으므로 기업이미지와 홍보의 효과를 한층 높여 줍니다.

2. 광고 상품안내

연간(12회) 계약 혜택 : 광고 디자인 무료, 기획기사 1회 취재 및 개재

3. 연락처 및 문의처

021-5579-7281 (mr. Kang) 0858-9060-0962,

이메일 : khong3000@gmail.com



SAMHO BOILER

SINCE 1969

대한민국 No.1 보일러

삼호 보일러

소각 스팀 보일러

- 용량 : (0.5T/H~5.0T/H) × 1.0Mpa
- 연료 : 섬유 / 목재 / 종이 / 석탄



입형 연관식 보일러

- 용량 : (0.1T/H~2.0T/H) × 1.0Mpa
- 연료 : 경유, 가스, 중유



특허번호 10-0870543 호

1. 콘덴싱 보일러

2. 횡형수관식 보일러

3. 수관식 보일러

4. 노통연관식 보일러

5. 초소형노통연관식 보일러

인도네시아 공식 대리점

 PT. HANSHIN AIR COMPANY	자카르타 : 유인대 Hp : 0811 834 398 E-mail : hanshinyu@hotmail.com Ruko Tataka Puri Blok C1 No. 25 Jl. Curug Raya Bitung Tangerang 15810 Tel. 021.5949.4000 / 5949.4222 Fax. 021.5949.4666
스마랑 : 정연오 Hp : 0815 1439 0006 Ruko, Jl. Gotri Jepara, Ds. Kalipucang Wetan RT. 001 RW. 002 No. 3 & 4 Kec. Welahan Jepara – Jawa Tengah	



PT. DONG JUNG INDONESIA

EXPORTER - IMPORTER - POLYBAG MANUFACTURER

PT. DONGJUNG INDONESIA는
1991년 설립이래, 27년동안 성실히 일해왔고
빠른 납기와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항상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신뢰할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Poly Bag (LDPE, HDPE, PP, EVA)
- PE Sheet (plain, embossed)
- PVC Bag
- OPP Bag
- Garbage Bag
- Zipper Bag
- Shopping Bag
- Strapping Band

Contact

Marketing Office

T. (62-21) 440 3926

F. (62-21) 440 3944

E-mail:

bhjangjk@indosat.net.id

kenleejh@gmail.com

www.dongjung.net



**“Best Poly Bag manufacturer”
in Indonesia since 1991**

Giant EXPRESS
WORLDWIDE EXPRESS
INDONESIA PRODUCTION

eva·menat
NEW YORK & COMPANY

Ridental
PARTY & SPECIAL

Best Quality
Fast Delivery

울상짓던 여성복, 뾰글이와 무스탕이 살렸다

코트 · 다운 · 패딩 지고 낮은 스웨터 판매 증가

올 겨울은 12월 초까지 일시적인 강한 한파가 있었지만 평년보다 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여성복 업계는 높은 기온과 경기 침체가 맞물려 아우터 판매가 원활치 않았다.

브랜드마다 편차는 있지만 코트, 다운 · 패딩, 모피 판매가 감소세다. 다행이 올 겨울 메가 트렌드로 자리잡은 뾰글이(플리스), 무스탕, 가죽 판매가 대체품 목으로 증가해 아우터 전체 판매 부진에 대한 낙폭을 줄였다. 롱패딩보다 숏패딩에 대한 반응도 나쁘지 않았다.

이러한 판매추이는 트렌드에 민감한 젊은 고객을 겨냥한 브랜드일수록 뚜렷하게 나타났다.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즉각적인 대응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다.

12월3일 기준 주요 여성복 전년대비 아우터 증감률을 조사했다. ‘쉬즈미스’는 아우터 전체 판매율은 2% 증가하는데 그쳤지만 뾰글이는 2075% 늘었다. 다운 · 패딩은 -34.5%를 기록했다. ‘리스트’는 아우터 판매가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코트 5%, 다운 · 패딩 -15%를 기록한 가운데 뾰글이와 무스탕은 각각 452%, 82% 신장 수

치를 기록했다. ‘스튜디오톰보이’는 아우터 판매가 10% 가량 늘었다. 코트 5%, 뾰글이 35%, 무스탕 35%, 다운 · 패딩 160%를 기록했다.

‘마센스’는 아우터 판매가 전년대비 10%늘었다. 코트 10%, 뾰글이와 무스탕 모두 완판 아이템이 배출, 위탁 진행으로 리오더에 들어갔다. 다운 · 패딩은 -15%를 기록했다.

‘비키’는 전년대비 아우터 전체 판매와 코트, 무스탕 판매는 보합이다. 뾰글이는 39% 늘었다. ‘베스띠밸리’는 아우터 판매가 30%가량 늘었다. 뾰글이가 2700%, 무스탕이 708% 늘어 호응을 얻은 것이 주효했다. ‘써스데이아일랜드’는 코트 15%, 뾰글이 250%, 무스탕 150%, 다운 · 패딩 보합이다.

‘블루페페’는 코트가 전년과 비교해 31% 판매가 줄었다. 다운과 모피도 8%가량 줄었다. 반면 무스탕은 130% 신장했으며 가죽아이템도 11%증가했다. 뾰글이도 새롭게 선보였는데 현재 까지 800장 가량 판매되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조이너스’도 무스탕 판매가 2003% 폭발적 신장세를 보이



▲ 출처 : 한국섬유신문

주요 여성복 전년비 아우터 판매 증감율															
증감율(%)	조이너스	꼼빠니아	블루페페	마센스	여성아날 도번시니	비키	베스띠밸리	씨	스튜디오 텐보이	쉬즈미스	리스트	베스데이 아일랜드	수스	매출 폭장수	글피티
아우터 토탈	4	3	12.2	10	-5.3	보합	30	보합	10	2	10	-	보합	-6	-10
코트	-50	100	-31	10	-28	보합	23	5	5	19.1	5	15	-3	-6	-10
다운 · 패딩	-20	70	-7.7	15	11	2	보합	보합	160	-34.5	-15	보합	20	18	16
무스탕	2003	546	130	원판 (리오더)	20	보합	708	2	35	-3.1	82	150	18	10	12
뾰글이	판매율 34	판매율 45	752장 판매	원판 (리오더)	-	39	2702	3	35	2075	452	250	-	-	-

고 있다. 반면 코트는 -50%, 다운 · 패딩 -20%를 기록했다. 뾰글이 판매율은 34%를 기록 중이다. ‘꼼빠니아’도 무스탕이 546% 늘었다. 뾰글이는 45% 판매율을 기록 중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코트, 패딩

아이템이 전년대비 감소 폭이 뚜렷하다. 올해 뾰글이와 무스탕 판매율은 수직상승세다. 경기 영향인지 단가가 낮은 스웨터의 판매 비중폭도 다소 올랐다. 아우터 전체 판매 추이는 다소 감소

이어 “초반까지는 기온 변화가 크겠지만 중후반 강한 한파가 잦을 것이라는 예보가 있어 막바지 겨울 아우터 재고 소진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ringing Eco Fashion Graphics to the World !”

A Leading Printing & Embroidery company
“BW를 비롯 Major buyer Audit 취득”



실리콘 / 콜 / 라바 및 각종 나염인쇄



듀얼 시퀀자수 / 시퀀자수 및 각종 자수



승화전사 / 스톤 / 비드 / 글리터 / 호일 작업



최신 설비 및 기계 완비.



(주) 제일 인도네시아

Bekasi Factory : Jl. Siliwangi Km. 9, Narogong, Kompleks Blue Bird, Bekasi
Subang Factory : Dusun Sidamukti , Wanakerta, Purwadadi, Subang
인니영업담당 : 장태선부장 (HP : 0812-5238-8871 / 021-8261-1020)
E-mail : tsjang02@gmail.com

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캄보디아